

캐나다

# 주요국 예산안

2023.7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본 보고서는 2023년 3월 28일에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2023 예산안(Budget 2023)'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연구진

오종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배진수 재정제도분석팀장

김진아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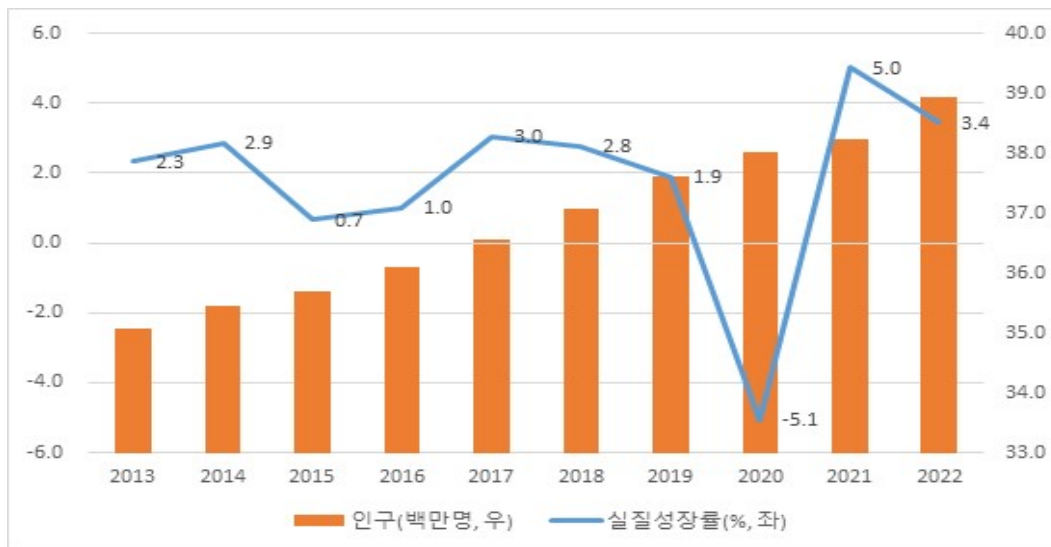
# Contents

<b>1</b>	<b>경제 및 재정 전망</b>	<b>1</b>
가.	경제전망 .....	1
나.	재정전망 .....	3
<b>2</b>	<b>재정 기조 및 정책 방향</b>	<b>5</b>
<b>3</b>	<b>세입 및 세출 전망</b>	<b>7</b>
가.	세입 전망 .....	7
나.	세출 전망 .....	9
<b>4</b>	<b>주요 정책</b>	<b>12</b>
가.	민생안정 .....	12
나.	보건 및 덴탈케어 .....	13
다.	Made-In Canada Plan .....	14
라.	포용적 지역사회 건설 .....	17
마.	글로벌 리더십 강화 .....	19
바.	효율적 정부 및 공평한 조세시스템 .....	20
사.	재정건전화 .....	22

---

## 캐나다 개황<sup>1)</sup>

- 2023-24회계연도 : 2023년 4월 ~ 2024년 3월
- 자료 : Budget 2023(2023.3.28.)  
Fall Economic Statement 2022(2022.11.3.)
- 환율 : 1캐나다달러 = 약 991.82원(2022년 평균)
- 경제규모 : GDP 2조 1,379억달러(2022년 기준)
- 인구 : 3,893만명(2022년 기준)
-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자료: OECD.Stat, 2023.7.11. 추출(<http://stats.oecd.org/>)

1)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3.7.11.), 경제규모, 인구, GDP(expenditure approach, CXC: 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는 OECD Stat(2023.7.11.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요 약** SUMMARY

- (경제 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3%, 2024년 1.5%, 물가상승률은 2024년 2분기 목표수준인 2% 대로 완화 전망
- (재정 전망) 2022-23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5%,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1% 이하를 나타낼 전망
  - (총수입) 2022-23회계연도 총수입은 4,373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240억 캐나다달러 증가하고, 2027-28회계연도에 5,428억캐나다달러로 지속적 증가 전망
  - (총지출) 2022-23회계연도 총지출은 4,704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229억 캐나다달러 감소하고,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 기초) 캐나다 정부는 청정에너지 투자 및 성장을 위한 2023-24회계연도 예산을 발표
- (주요 정책 방향) 사람, 성장, 일자리, 지역사회를 위한 주요 목표 및 정책 제시
  - (사람) 공공 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나은 보육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 (성장) 캐나다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 및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일자리)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습득을 돕고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한 합리적 주거비용, 대중교통, 데이터통신망 등의 정책 마련

# 1 | 경제 및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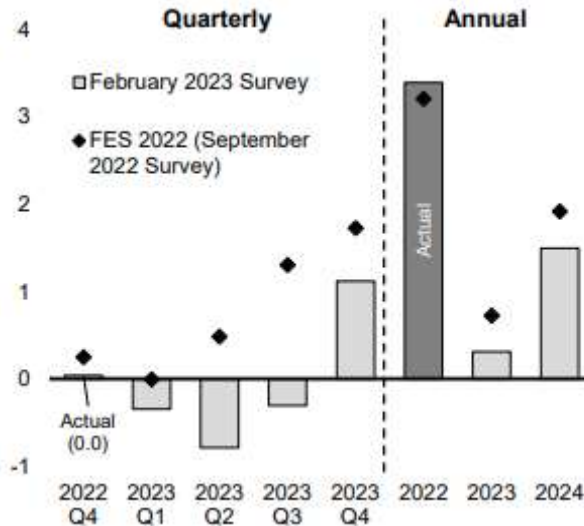
## 가 | 경제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22년 3.4%에서 2023년 0.3%로 둔화되고 2024년에는 1.5%로 반등할 전망

- 2022년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sup>2)</sup>; FES) 대비 2022년 0.2%p 증가, 2023년 및 2024년 전망은 0.4%p 하향 조정
  - 캐나다 민간부문 경제학자들은 2023년 캐나다 경제의 얇은 경기침체를 예상
- 2022~2027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로 전망

〈 그림 1 〉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3 Chart 16, 2023.3.28.

» (명목 GDP 성장률) 2022년 명목 GDP 성장률은 2022년 FES 전망 대비 0.6%p 하락한 11.0%, 2023년은 1.7%p 하향 조정된 0.9%로 전망

2) 출처: 캐나다 정부, Fall Economic Statement 2022, 2022.11.3., <https://www.budget.canada.ca/fes-eea/2022/home-accueil-en.html>, 검색일자: 2023.6.26.

- 과세 기준의 가장 광범위한 척도인 명목 GDP 하락 전망은 세입 및 정부 수입 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2023년 명목 GDP의 성장 둔화는 2023-24회계연도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증가시킴
- » (실업률) 경제 둔화로 인해 캐나다 실업률은 2023년 말 6.3%로 정점을 찍을 전망
  - 그러나 실업률은 역사적 기준에서 볼 때 강력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2027년 평균 실업률은 5.8%로 전망
-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 상품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2023년 3분기에 3% 아래로 떨어지면서 계속 완화될 전망
  - 이후 2024년 2분기에 캐나다 은행의 목표인 2% 수준으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 (위험) 물가상승 지속, 급격한 금리 상승과 연관된 세계 금융시장 혼란, 급격한 주택조정 등은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전 세계 공급 문제 완화, 인구 증가, 중국 경제의 빠른 반등 등의 요인은 경제 상방위험으로 작용

〈 표 1 〉 주요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2 -2027
실질 GDP 성장률	2022 FES	3.2	0.7	1.9	2.3	2.1	1.9	2.0
	Budget 2023	3.4	0.3	1.5	2.3	2.2	1.9	2.0
명목 GDP 성장률	2022 FES	11.6	2.6	3.7	4.2	4.1	3.9	5.0
	Budget 2023	11.0	0.9	3.6	4.3	4.1	3.9	4.6
실업률	2022 FES	5.4	6.1	6.2	6.0	5.8	5.7	5.9
	Budget 2023	5.3	5.8	6.2	6.0	5.7	5.7	5.8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2022 FES	6.8	3.5	2.1	2.1	2.1	2.1	3.1
	Budget 2023	6.8	3.5	2.1	2.1	2.1	2.1	3.1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3 Table A1.1 일부 발췌, 2023.3.28.

**나** 재정 전망

- » (재정수지) 2022-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430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5%)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1% 이하를 나타낼 전망
  - 2027-28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40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4%)를 기록할 전망
- » (총수입) 2022-23회계연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240억캐나다달러 증가한 4,373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5.7%)로 전망
  - 향후 2027-28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16.5%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 (총지출) 2022-23회계연도 총지출은 4,704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2-23회계연도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 대비 329억캐나다달러 감소한 4,359억 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10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45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프로그램 지출은 2022-23회계연도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이자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 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sup>3)</sup> 비율은 2023-24회계연도에 43.5%를 기록한 후, 2027-28회계연도까지 39.9%로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
  - GDP 대비 채무비율이 하향경로를 유지함에 따라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
  - 더 높은 차입비용에도 불구하고 공공채무 조달비용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3)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 표 2 〉 재정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총수입	413.3	437.3	456.8	478.5	498.4	521.8	542.8
총지출	493.3	470.4	490.5	509.3	522.5	537.6	555.7
프로그램지출	468.8	435.9	446.6	463.3	475.9	489.2	505.4
이자지출	24.5	34.5	43.9	46.0	46.6	48.3	50.3
재정수지	-90.2	-43.0	-40.1	-35.0	-26.8	-15.8	-14.0
연방채무	1,134.5	1,180.7	1,220.8	1,255.8	1,282.7	1,298.4	1,312.5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6.5	15.7	16.3	16.4	16.4	16.5	16.5
프로그램지출	18.7	15.7	15.9	15.9	15.7	15.5	15.5
이자지출	1.0	1.2	1.6	1.6	1.5	1.5	1.5
재정수지	-3.6	-1.5	-1.4	-1.2	-0.9	-0.5	-0.4
연방채무	45.2	42.4	43.5	43.2	42.2	41.1	39.9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3* Table A1.5 일부 발췌, 2023.3.28.

## 2 | 재정기조 및 정책방향

### »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28일 청정에너지 투자 및 성장을 위한 2023-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Budget 2023: A made-in-Canada plan)

- 이번 예산안에서는 사람, 성장, 일자리 및 지역사회를 위한 목표를 제시
  - (사람) 공공 의료체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더 나은 보육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 (성장) 캐나다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 및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일자리)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습득을 돕고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한 합리적 주거비용, 대중교통, 데이터통신망 등의 정책 마련
- Budget 2023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sup>4)</sup>
  -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00만 저소득층 국민에 대해 식료품 비용 환급금(Grocery Rebate) 지급
    - ◆ 2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467캐나다달러, 독신 성인은 최대 234캐나다달러, 고령자는 최대 225캐나다달러 추가 지급
  - 숨겨진 수수료 및 대출 단속,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감축 등 민생안정 고려한 정책 제시
  - 보편적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방 및 주에서도 적시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1,983억캐나다달러 투입
    - ◆ 또한 2023년 새로운 덴탈케어 플랜을 도입하여 최대 90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

4)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Government of Canada releases Budget 2023", 2023.3.28., 검색일자, 2023.6.29.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3/03/government-of-canada-releases-budget-2023.html>

- 청정경제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혁신적 투자 시행
  - ◆ 더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지역사회 투자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포함
-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적자와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유지하는 건실한 재정 계획 수립

## 3 | 세입 및 세출 전망

### 가 세입 전망

» 2022-23회계연도 총세입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4,373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5.7%)로 전망되며, 2027-28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중은 16.5%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조세수입) 2022-23회계연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209억캐나다달러(6.0%) 증가한 3,71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3.3%)로 전망
  - (개인소득세) 2022-23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4.2% 증가한 후 2023-24회계연도에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 ◆ 이후 전망기간 동안 고용 및 투자수입의 점진적 증가를 반영하여 연평균 4.8% 증가 전망
  - (법인세) 산업 부문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수입증가에 힘입어 2022-23회계연도에 11.7% 증가(880억캐나다달러) 전망
    - ◆ 2023-24회계연도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2.9% 감소한 후 남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비거주자 소득세) 비거주자가 캐나다로부터의 소득, 특히 배당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소득세는 2022-23회계연도에 25.7% 증가한 136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세입 증가율은 대체로 평탄할 것으로 예상
  - (재화 및 용역세) 2022-23회계연도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45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관세) 2022-23회계연도 관세수입은 개인보호장비 및 기타의료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폐지와 수입의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4.4% 성장할 전망
- (탄소세) 탄소 가격 인상으로 인해 탄소세 수입은 증가할 전망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 3개 주(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Newfoundland and Labrador)에서 시행되는 연방 연료부담금은 더 높은 탄소세 수입에 기여

- 탄소가격은 2021년 8월 발표된 “Update to the Pan-Canadian Approach to Carbon Pollution Pricing 2023-30<sup>5)</sup>”에 명시된 대로 2023-24회계연도부터 톤당 50캐나다달러에서 매년 15캐나다달러씩 인상되는 가격을 반영하여 전망
- (고용보험) 2022-23회계연도 고용보험료 수입은 노동시장의 지속적 강세로 전년대비 12.3% 증가한 268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이후 전망기간 동안 고용보험 수입은 꾸준한 성장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3.7% 증가 예상
- (기타 세입) 2022-23회계연도 기타 세입은 전년 대비 11억캐나다달러 감소한 313억 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표 3 〉 세입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총 소득세	288.0	308.3	312.9	323.9	336.3	349.6	364.6
개인소득세	198.4	206.8	213.7	224.5	235.7	246.5	257.9
법인세	78.8	88.0	85.5	86.3	87.8	90.1	93.1
비거주자소득세	10.8	13.6	13.7	13.1	12.7	13.0	13.6
총 소비세	62.7	63.0	69.9	72.8	75.1	77.4	79.8
재화 및 용역세	46.2	45.4	51.4	53.5	55.5	57.4	59.4
관세	5.2	6.2	6.5	6.9	7.1	7.4	7.7
기타소비세	11.3	11.4	11.9	12.4	12.5	12.6	12.7
기타조세	0.0	0.2	0.9	0.9	1.0	3.9	3.4
총 조세수입	350.7	371.6	383.7	397.6	412.4	430.8	447.8
탄소세	6.3	7.7	10.1	12.3	14.0	15.7	17.1
고용보험	23.9	26.8	28.2	29.0	29.9	31.0	32.1
기타 세입	32.4	31.3	34.7	39.7	42.1	44.3	45.8
총 세입	413.3	437.3	456.8	478.5	498.4	521.8	542.8
GDP 대비 비중(%)							
총 조세수입	14.0	13.3	13.7	13.7	13.6	13.6	13.6
탄소세	0.3	0.3	0.4	0.4	0.5	0.5	0.5
고용보험	1.0	1.0	1.0	1.0	1.0	1.0	1.0
기타 세입	1.3	1.1	1.2	1.4	1.4	1.4	1.4
총 세입	16.5	15.7	16.3	16.4	16.4	16.5	16.5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3 Table A1.6 일부 발췌, 2023.3.28.

5)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pricing-pollution-how-it-will-work/carbon-pollution-pricing-federal-benchmark-information/federal-benchmark-2023-2030.html>, 2021.8.5., 검색일자: 2022.4.26.

**나** | **세출 전망**

» 2022-23회계연도 총세출은 전년대비 229억캐나다달러(4.6%) 감소한 4,704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이후 총세출은 매년 소폭 증가할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2022-23회계연도에 1,133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19.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전망기간 동안 매년 소폭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 2022-23회계연도에 전년대비 13.7% 급증한 691억캐나다달러 전망이며, 전망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여 연평균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용보험) 2022-23회계연도에 226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큰 폭(41.9%) 하락할 전망이며, 이는 팬데믹 관련 임시 조치 만료와 낮은 실업률을 반영
    - ◆ 고용보험 지출은 2023-24 및 2024-25회계연도에 걸쳐 노동시장 여건악화로 연평균 6.2% 증가한 후 남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2.3% 증가 전망
  - (아동지원) 2022-23회계연도에 전년대비 6.6% 감소한 245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임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
    - ◆ 아동지원 관련 지출은 2023-24회계연도에 4.5%, 2024-25회계연도에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3.1% 증가 전망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sup>6)</sup>) 2022-23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2.9% 증가한 910억 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7-28회계연도에는 1,17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의료지출) 2023년 2월 7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10년 보건계획의 일환으로 20억캐나다달러가 추가 반영되어 2022-23회계연도 보건지출은 471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 향후 5년간 매년 5%의 보건지출 증가로 2023-24회계연도에 494억캐나다달러, 2027-28회계연도에는 602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으며, 2022-23회계연도에 159억캐나다달러에서 2027-28회계연도에 18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6)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 (보건협정<sup>7)</sup>) 홈케어 및 정신보건 협정이 만료되는 2026-27회계연도까지는 37억캐나다달러를 지출하고, 2027-28회계연도에는 25억캐나다달러 지출 전망
- (유아교육 및 보육) 캐나다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sup>8)</sup> 관련 이전지출은 2022-23회계연도 45억캐나다달러에서 2027-28회계연도 77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 2023-24회계연도에 시작되는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Infrastructure Fund에 대한 4년간 6억 2,500만캐나다달러 지출 포함
- (탄소세 반환) 탄소세 반환금<sup>9)</sup>은 2022-23회계연도 69억캐나다달러에서 2027-28회계연도 171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탄소 가격 상승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개 주에 대한 연방 연료부담금에 기인
- (직접프로그램 지출) 긴급임금보조금, 기타 이전지출 및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는 직접 프로그램 지출은 2022-23회계연도 2,248억캐나다달러에서 2023-24회계연도 2,102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한 후 2027-28회계연도에 2,177억캐나다달러로 증가 전망
  - (기타 이전지출)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타 이전지출은 2023-24회계연도에 864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한 후 2027-28회계연도에 940억캐나다달러로 증가 전망
    - ◆ 전망 초기 감소분은 팬데믹 관련 임대료 및 임금지원 만료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후 이전지출 증가는 청정에너지 기술 인센티브, 청정연료 및 청정기술 제조에 대한 세금감면을 포함한 2023년 예산 조치를 반영
  - (운영비용<sup>10)</sup>) 2022-23회계연도에 1,314억캐나다달러에서 2025-26회계연도에 1,199억캐나다달러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소폭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7) 지방 및 주정부와의 보건협정은 Home and Community Care and Mental Health and Addictions Services Agreements, and the new Tailored Bilateral Agreements를 포함

8) 캐나다 정부는 2021년 예산에서 향후 5년간 약 30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움. 캐나다 가정의 생활비 절약을 위해 하루 평균 10달러의 보육 공간을 제공하고 2022년 말까지 평균 비용의 50% 감소 계획.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A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Plan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1/12/a-canada-wide-early-learning-and-child-care-plan.html>, 2021.12.16., 검색일자: 2022.4.26.

9) 탄소세 반환금은 연방정부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환금으로 온타리오, 알버타, 사스캐처완, 매니토바주 납세자들에게 기후행동인센티브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라는 이름으로 지급

10) 운영비용은 100개 이상의 정부부처, 기관 및 공기업 운영비용을 반영

〈 표 4 〉 세출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1,415	1,133	1,257	1,341	1,411	1,473	1,536
노인지원	608	691	759	812	863	914	963
고용보험 <sup>1)</sup>	389	226	242	255	262	266	273
코로나19 근로자 소득지원 <sup>2)</sup>	156	-30	0	0	0	0	0
아동수당 <sup>3)</sup>	262	245	256	274	285	293	300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884	910	995	1,047	1,098	1,139	1,170
의료(CHT) <sup>4)</sup>	451	471	494	520	546	573	602
사회보장(CST)	155	159	164	169	174	179	185
재정균등화교부금	209	219	240	252	259	270	281
준주교부금	44	46	48	51	53	54	57
보건협정 <sup>5)</sup>	25	12	37	37	37	37	25
유아교육및보육 <sup>6)</sup>	29	45	56	66	79	79	77
지역사회구축기금	23	23	24	24	25	25	26
기타재정협정	-53	-65	-68	-72	-75	-78	-82
탄소세 반환금	38	69	112	135	140	158	171
직접프로그램 지출	2,351	2,248	2,102	2,110	2,110	2,123	2,177
긴급임금보조금	223	-2	0	0	0	0	0
기타 이전지출	885	936	864	908	911	912	940
운영비용 <sup>7)</sup>	1,243	1,314	1,237	1,202	1,199	1,211	1,237
총프로그램지출	4,688	4,359	4,466	4,633	4,759	4,892	5,054
채무상환비용	245	345	439	460	466	483	503
총지출	4,933	4,704	4,905	5,093	5,225	5,376	5,557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5.6	4.1	4.5	4.6	4.6	4.7	4.7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3.5	3.3	3.5	3.6	3.6	3.6	3.6
직접프로그램 지출	9.4	8.1	7.5	7.3	6.9	6.7	6.6
총프로그램지출	18.7	15.7	15.9	15.9	15.7	15.5	15.4
총지출	20.1	17.2	17.7	17.6	17.3	17.0	17.0

주: 1) 일반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수당, 간병급여, 수산급여, 단축지원금 등이 포함  
 2)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anada Recovery Benefit,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포함  
 3) 아동장애수당 포함  
 4) 2022-23회계연도에 20억캐나다달러 일회성 지원과 2027-28회계연도까지 5% 인상 보장  
 5) Home and Community Care and Mental Health and Addictions Services Agreements, and the new Tailored Bilateral Agreements를 포함하지만 장기요양 30억캐나다달러, 요양보호자 임금인상 17억캐나다달러, Territorial Health Investment Fund는 제외  
 6) 기타 이전지출에 포함된 원주민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원금은 제외  
 7)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3 Table A1.7 일부 발췌, 2023.3.28.

## 4 | 주요 정책 결정

### 가 | 민생안정

#### » 2023년 예산에서 정부는 물가상승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조치들을 추가 및 도입

- 저소득 및 중산층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 캐나다 근로자 혜택<sup>11)</sup> 확대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428캐나다달러, 부부는 최대 2,461캐나다달러 수령 가능하며 장애인은 737캐나다달러 추가 환급 가능
  - 약 1,100만명의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 일회성 식료품 비용 환급금(Grocery Rebate) 지급을 위해 25억캐나다달러 편성
    - ◆ 식료품 비용은 세금 환급을 통해 지원되며 두 자녀를 둔 가구에 467캐나다달러, 노인 1인당 225캐나다달러, 성인은 234캐나다달러 최대 지급
  - 숨겨진 악성 수수료(junk fee) 근절로 가격 투명성 확보
    - ◆ 단속 대상은 높은 통신 로밍 요금, 이벤트 및 콘서트 요금, 과도한 수화물 요금, 부당한 배송 및 운임 요금 등 포함
  - 고등교육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2023-24회계연도에 8억 1,360만캐나다달러 지원
    - ◆ 학생 보조금 40% 인상: 전일제 학생의 경우 최대 4,200캐나다달러
    - ◆ 무이자 학자금 대출 한도 인상: 주당 210캐나다달러 → 300캐나다달러
    - ◆ 22세 이상 학생이 보조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 시 신용 조회 면제
- 주택정책
  - 첫 주택마련을 위한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시행
    - ◆ 연방정부는 2022년 최초 주택 구매희망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비과세 주택마련 저축계좌 플랜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플랜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11) Canada Workers Benefit: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시스템으로 캐나다에서 일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개인 또는 가구가 대상

- ◆ 첫 주택 구매자들은 FHSA를 통해 4만캐나다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은 비과세
- 도시, 지방, 북부지역 거주 원주민을 위한 주택 전략에 향후 7년간 40억캐나다달러 투자
- ◆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은 보건 및 사회적 발전, 원주민 지역사회와 어린이를 위한 더 나은 미래 보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원주민 지역사회 주택지원을 위해 67억캐나다달러 이상을 지원

## 나 보건 및 덴탈케어

### » 캐나다 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 및 국민들의 덴탈케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발표하는 등 국민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

-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2023년 예산안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에 향후 10년간 1,983억 캐나다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지방 및 주정부에 대한 신규자금 462억캐나다달러 포함
  - 또한 캐나다의료예산(CHT) 추가 배정, 각 지방 및 주정부의 의료 요청에 대한 맞춤형 협정, 간병인 임금지원, 리뉴얼된 Territorial Health Investment Fund 자금 및 원주민 건강평형기금<sup>12)</sup> 20억캐나다달러 등도 포함
- (덴탈케어) 신규 덴탈케어 계획 시행을 위해 5년간 130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치과 진료비 지원 및 대상 확대
  - 연소득 9만캐나다달러 미만의 보험미가입 가구에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가구 연소득이 7만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전액 보조
  - 2022년 저소득 가구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비 보조<sup>13)</sup>가 시행된 이후 2023년부터 지원대상도 18세 미만,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될 예정
- (접근성 향상) 치과진료가 어려운 경우(장애, 지역문제 등)에도 덴탈케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26회계연도부터 3년간 2억 5,000만캐나다달러를 투자

12) Indigenous Health Equity Fund

13) 가구소득 7만캐나다달러 미만, 자녀당 650캐나다달러, 가구소득 7만~8만캐나다달러의 경우 자녀당 390캐나다달러, 가구소득 8만~9만 캐나다달러의 경우 자녀당 260캐나다달러 보험금 지원

- (의료인력 확충) 농촌 및 원거리 지역사회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향후 4년간 4,59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
  - 의료인력 부족으로 1차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학자금 용자 상환 면제 비율을 1인당 50%로 확대
  - 기존에 북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인구 3만명 이하의 모든 커뮤니티로 확대
- (자살예방) 자살예방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1억 5,840만 캐나다달러 지원
- (낙태 및 성건강) 낙태, 성건강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이용 보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직 지원을 위해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und에 향후 3년간 3,600만캐나다달러 지원
-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sup>14)</sup>)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을 위해 5년간 3억 5,920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할 정부 업무 지원

**다**

**Made-In Canada Plan**

- » 2023년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일자리, 청정에너지 성장 투자에 중점
- 청정경제의 원동력인 청정 전기에 대한 투자로 국민과 기업에 더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 국민과 기업을 필수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만들고, 넷제로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과 자원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 투자
  - Made-In Canada 계획을 위해서는 연방의 재정적 인센티브 3단계 필요
    -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투자 세액 공제제도, 저비용 전략적 자금 조달, 국가 경제 중요성 있는 부문 또는 프로젝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투자 및 프로그래밍

14) 오피오이드 위기관 주로 북미지역과 일부 유럽지역에서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 및 펜타닐 유사체 등)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 및 내원 사례가 급속히 증가해 해당 국가에서 이를 '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약물 과다 사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책을 실시

## (1) 청정 전기 생산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 청정 전력에의 투자 전략 발표

- 청정 전기 생산을 위한 투자 지원 및 가속화를 위해 해당 투자에 대해 15%의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추진
  - 지원 대상: 무공해 전기 발전시스템, 천연가스 화력발전 감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식 전기저장시스템, 지역을 연결하는 전기 전송 장비 등
  - 세액 공제는 2024-25회계연도부터 4년간 63억캐나다달러, 2028-29회계연도부터 2034-35회계연도까지 추가로 194억캐나다달러 소요 예상
- 청정 전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23-24회계연도부터 13년간 천연자원부에 30억 캐나다달러 지원 등 청정 전기 생산을 위한 지속적 투자 약속
- 캐나다 인프라 은행(Infrastructure Bank)은 청정 전력 분야 및 녹색 인프라 분야에 각각 최소 100억캐나다달러씩 투자를 발표

## (2) 성장하는 청정 경제

- (광물) 2023년 예산은 청정 기술 제조, 중요 핵심 광물의 추출·가공·재활용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대해 투자비용의 30%에 해당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 도입
  - 대상: 청정 기술 공급망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추출·가공·재활용 기술,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 에너지 장비 제조, 핵연료 및 증수 처리 또는 재활용, 무공해 차량 제조, 전기차에 사용되는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등
  - 투자세액 공제는 2023-24회계연도부터 5년간 45억캐나다달러, 2028-29 회계연도부터 2034-35회계연도까지 추가 66억캐나다달러 소요 전망
- (수소) 2022년 가을경제보고서<sup>15)</sup>에서 발표한 바 있는 청정 수소 생산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내용 발표
  - 지원 수준은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프로젝트 비용의 15~40%를 지원하며 가장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가장 높은 지원 제공
    - ◆ 수소 1kg 생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75kg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시설 구축 시 낸 세금의 40% 환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75~2kg 사이일 경우 25%, 2~4kg일 경우 15% 환급

15) 캐나다정부 홈페이지, Fall Economic Statement 2022, 2022.11.3.  
<https://www.budget.canada.ca/fes-eea/2022/home-accueil-en.html>, 검색일자: 2023.7.6.

- 또한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대해 15% 세액 공제
- 다만, 일정 노동요건(일반적 수준의 급여 지급, 훈련기회 창출 보장)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율 10%p 감소<sup>16)</sup>
- 수소 생산 투자세액공제는 2023-24회계연도부터 5년간 56억캐나다달러, 2028-29회계연도부터 2034-35회계연도까지 추가 121억캐나다달러 소요 전망
- (무공해 기술기업) 무공해 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기존 2029년에서 2032년까지 3년 연장
  - 2021년 예산에서 무공해 기술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절반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은 4.5%, 기타 기업은 7.5% 적용
- (혁신적 전략 기금<sup>17)</sup>) 청정 기술의 발전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혁신 기금에 10년간 5억캐나다달러를 제공하고, 기존의 기금 중 최대 15억캐나다달러를 청정 기술, 핵심광물, 산업 혁신을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
-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2023년 예산은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발표하였으며, 2023-24회계연도부터 5년간 5억 2천만캐나다달러 소요 전망

### (3) 근로자 지원

- 상인 도구 비용<sup>18)</sup> 공제 금액 2배 확대(500캐나다달러→1,000캐나다달러), 종업원주식신탁제도<sup>19)</sup> 개정
- Labour Market Transfer Agreements<sup>20)</sup>에 2023-24회계연도에 추가 6억 2,500만 캐나다달러 투자
- 어업 및 관광부문을 포함한 계절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연장으로 2023-24년부터 3년간 1억 4,700만캐나다달러 소요
- Work-Sharing 프로그램이 근로자 및 기업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사회개발부에 2023-24년부터 3년간 540만캐나다달러를 배정
- 학생들이 고등 교육기관에서 노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25회계연도에 1억 9,770만캐나다달러 할당

16) 본 노동요건은 전기, 수소,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에 동일하게 적용

17) Strategic Innovation Fund

18) Tradespeople's Tool Expenses

19) EOT, Employee ownership trust

20) 캐나다 전역의 개인 및 고용주에 대한 기술훈련 및 고용, 교육 등 제공

**(4) 교통운송 및 인프라 강화<sup>21)</sup>**

- (운송시스템 및 공급망 인프라 강화) 운송 공급망 사무소 설립 지원, 교통 공급망 데이터 개발, 교통 인프라가 미래무역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 로드맵 개발 지원 등 투자
  - 2023-34회계연도부터 5년간 2,720만캐나다달러를 교통부에 지원해 교통 공급망 인프라의 용량,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운송 공급망 사무소 설립
  - 혼잡감소, 공급망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교통 공급망 데이터 개발에 2023-24회계연도부터 5년간 2,500만캐나다달러 배정
-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sup>22)</sup>) 캐나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전역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330억캐나다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강력한 커뮤니티 구축, 경제 성장,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목표
  - 주요 프로젝트는 대중교통 인프라, 녹색 인프라, 지역사회·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농촌 및 북부지역 인프라 등으로 분류
- (철도) 캐나다 전역을 연결하는 VIA 철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24회계연도부터 5년간 2억 1,000만캐나다달러 투자
- (기타) 이 밖에도 선박, 페리, 고속도로 등 지역의 교통 인프라 지원을 위한 투자 방안 제시

**라**

**포용적 지역사회 건설**

»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

- (원주민 지역사회 번영) 퍼스트네이션, 메티스족 등 원주민 정부의 역량강화 및 원주민 사회의 경제번영을 위한 자결권 강화 등을 위한 지원 제공
- (원주민 지역사회 투자) 원주민들의 건강, 안전한 주거생활, 원주민 여성 안전 대책 지원, 퍼스트네이션 아동지원 등 원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지속
  - 2023-24회계연도를 시작으로 5년간 정신건강, 치과 및 안과 치료, 약물을 포함한 보건서비스 지원에 8억 1,060만캐나다달러 지원

21)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7년부터 캐나다 교역 역량 강화를 위해 27억캐나다달러 이상을 투자

22) Investing in Canada Infrastructure Program(ICIP): 캐나다 정부는 투자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금을 제공하며,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및 주정부와 양자협정을 통해 330억캐나다달러가 넘는 자금을 제공  
 캐나다정부 홈페이지, <https://www.infrastructure.gc.ca/plan/icp-pic-INFC-eng.html>, 검색일자: 2023.7.7.

- 2023-24회계연도부터 3년간 이누이트족의 결핵비율 감소를 위해 1,620만 캐나다달러 지원
- 퍼스트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족의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4-25회계연도부터 7년에 걸쳐 40억캐나다달러 지원 계획
- 원주민 여성, 소녀들의 실종 및 살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안전한 원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 퍼스트네이션 아동들이 Jordan's Principle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7,100만캐나다달러 지원

» 환경 및 생태계 보호

- 2023-24회계연도부터 10년간 캐나다 전역<sup>23)</sup>의 수질 개선 및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복원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6억 5천만캐나다달러, 담수 보호를 위한 노력의 더 나은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260만캐나다달러 배정
- 2023-24회계연도부터 3년간 고래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1억 5,190만캐나다달러, 멸종 위기종 보호 및 개체수 복원을 위해 1억 8,400만캐나다달러 할당
- 2023-24회계연도부터 7년간 1억 6,540만캐나다달러 투입하여 차세대 청정 선박 진수를 촉진하고 해안전력 기술 투자, 저배출 및 저소음 선박 우선순위 설정 등 해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

»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 (공용어) The Action Plan for Official Languages 지원을 위해 2023-34회계연도부터 5년간 3억 7,370만캐나다달러 제공
  - The Action Plan for Official Languages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동등함을 보장하고 프랑스어 사용인구 확대, 프랑스어 사용자 커뮤니티 규모 회복, 이중언어 사용을 확대 등을 위한 연방정부의 계획
  - 또한 2023-24회계연도부터 5년간 공용어 소수 커뮤니티를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에 2억 800만캐나다달러 투자
- (관광)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 부문을 위해 2023-24회계연도부터 3년간 1억 800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sup>23)</sup>the Great Lakes, Lake Winnipeg, Lake of the Woods, St. Lawrence River, Fraser River, Saint John River, Mackenzie River, and Lake Simcoe

- (차별) 반인종차별 전략(Anti-Racism Strategy)에 5년간 2,540만캐나다달러 추가 투자, Action plan to combat hate에 5년간 4,950만캐나다달러 배정, 흑인 커뮤니티 지원에 2,500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 (이민 등) 지역사회 강화 및 캐나다 경제성장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50만명의 영주권을 승인할 예정
  - 시민권 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5년간 1,000만캐나다달러 투입
  - 캐나다 여행자를 위한 신청 절차 단순화 및 전자 여행 허가 프로그램 자격 확대 등 추진

## 마 | 글로벌 리더십 강화

### » (국방력 강화) 이번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된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NATO에 기후변화 및 안보센터를 건립하는 등 국방력 강화 내용 포함

- 캐나다는 20년간 국방강화를 위해 550억캐나다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방정책 강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 약속
- 2022년 NATO 정상회의에서 몬트리올에 새로운 기후변화 및 안보센터 설립이 발표 되었으며, 센터 건립을 위해 5년간 4,040만캐나다달러 배정
  - NATO 동맹국들은 센터를 통해 기후변화가 군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문제를 분석
- 외국의 간첩, 위협 및 간첩 등의 활동으로부터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4,890만캐나다달러를 투입

### » (우크라이나 지원) 2023년 예산안에서 추가 재정적 군사적 지원 발표

- 캐나다는 현재까지 총 54억캐나다달러 이상의 원조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필수적인 재정지원 및 군사지원을 제공
- 2023년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24억캐나다달러의 추가 대출을 제공하며, 이는 IMF 관리계정을 통해 제공될 예정
- 우크라이나 방어 강화를 위해 이전에 발표된 Leopard 2 주력 탱크 8대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위한 2억캐나다달러 추가 자금 제공 발표

-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정신건강 지원, 지뢰제거, 농업 및 기타 분야에 대해 8,480만캐나다달러 지원 발표
- » (국제사회 지원) 캐나다는 매년 국제 개발 원조를 늘리고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 세계에서 캐나다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조치 지속
  - 캐나다는 1970년부터 개발도상국에 특혜관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 일반 특혜관세 및 최빈국관세를 2034년까지 갱신하고 새로운 특혜관세 플러스를 만들 것을 제안
  - 캐나다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사용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2024년 도입할 것임을 발표

**바**

**효율적 정부 및 공평한 조세시스템**

- » (효율적 정부) 2023년 예산안은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지출 방안 제시
  - (지출절감 확대) 2023년 예산안에서는 향후 5년간 154억캐나다달러 지출절감 계획을 발표
    - 2022년 예산안에서는 4년간 30억캐나다달러 절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가을경제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낮은 코로나19 지원 필요성으로 지출 절감을 38억캐나다달러로 확대함을 발표
    - 특정 분야(컨설팅, 전문서비스 등)의 계획된 재량 지출을 약 15% 감축하여 5년간 71억캐나다달러 절감
    - 2026-27회계연도까지 부처 및 기관의 지출 3% 삭감으로 4년간 70억캐나다달러 지출 절감
    - 공기업의 지출 절감 참여로 4년간 13억캐나다달러 절감 계획
    - 2023년 예산안의 추가 절감액은 작년 예산 공약 및 캐나다 공공의료시스템 강화, 치과 치료 계획, 청정경제 구축을 위한 비용에 사용될 예정
  - (지출재조정) 이전에 발표된 지출이 할당되지 않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원래 계획보다 지연된 경우 이를 감축하여 재조정함으로써 6년간 64억캐나다달러 절감
  - (프로그램 효과 검토) 정부 간 프로그램 효과 검토를 도입하여 더 효과적 정부 프로그램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

» **국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 (항공 승객 권리 보호) 2023-24회계연도부터 3년간 7,590만캐나다달러를 교통국에 지원하여 국민과 기업이 항공, 철도 또는 해상서비스 제공자와 문제해결이 필요할 때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
  - 교통국 및 항공사 책임을 강화하며 승객이 지연 및 결항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
- (공항운영 및 승객심사 개선) 서비스 수준 유지 및 개선, 심사대기시간 감소, 공항 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5년간 18억캐나다달러 배정
  - 항공 부문 성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5년간 520만캐나다달러 배정 등
- (재향군인 서비스) 참전용사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 서비스 지원을 위해 5년간 1억 5,670만캐나다달러 지원
- (IT 현대화) 700만 노인인구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급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년간 1억 2,390만캐나다달러를 투입하여 현대화 작업 진행

» **공평한 조세시스템**

- (부유세 인상) 공정한 세금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최저한세율(AMT<sup>24</sup>)을 15%에서 20.5%로 인상
  - 2024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30억캐나다달러 수입 증가 예상
  -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AMT 면제금액이 4만캐나다달러에서 17만 3,000캐나다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여 중산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초래
- (국제조세) 캐나다 정부는 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sup>25</sup>에서 138개 회원국이 동의한 디지털세(Pillar 1, 2) 관련 국제조세 개혁 계획을 강력히 지지함을 발표
  - \* Pillar 1(Reallocation of Taxing Rights):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Pillar 2(Global Minimum Tax):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 캐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이 가능하도록 2023년 새로운 체계 적용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

24) Alternative Minimum Tax

25)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143개 국 참여)로서 Pillar1,2 논의 주도(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디지털세(필라1,2) 관련 성명문”, 2023.7.12.)

- (주식환매세) 2022년 가을경제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캐나다 공기업의 주식환매에 2% 세금 도입을 언급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 세부사항 발표
  - 세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공기업 및 특정 상장 신탁 및 파트너십에 의한 주식 환매의 연간 순가치에 적용될 것이며, 기업의 총 환매액이 100만캐나다달러 미만일 경우 1년 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주식환매세 도입으로 2023-24회계연도부터 5년간 연방세입이 25억캐나다달러 증가할 전망
- (금융기관 배당금 과세) 2023년 예산안은 금융기관이 주식에서 얻는 배당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
  - 현재 금융기관이 받는 주식 배당금은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아 사실상 세금 면제
  -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4-25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연방세입이 31억 5,000만 캐나다달러 증가할 전망

**사**

**재정건전화**

» **캐나다의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은 정부의 목표, 전략, 국내외 채무 프로그램 및 공식 준비금 관리를 위한 차입계획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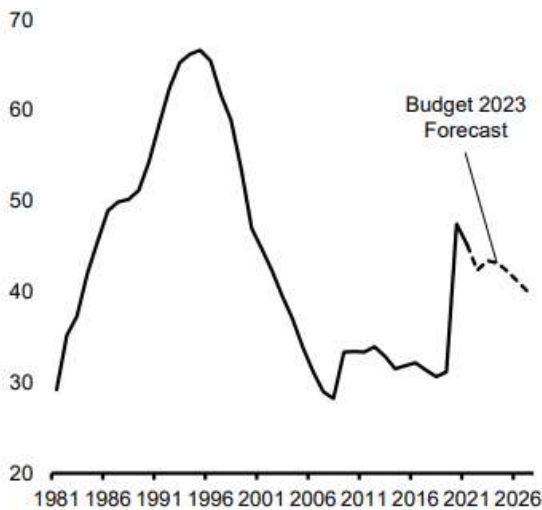
- (목표) 채무관리의 기본 목표는 정부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정적이고 저비용의 자금 조달과 잘 작동하는 정부 채권시장을 유지
- (현황) 캐나다는 G7국가 중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
- (평가) 신용평가기관은 캐나다의 효과적, 안정적, 예측 가능한 정책결정 및 정치제도, 경제적 회복력과 다양성, 금융시장 규제, 통화 및 재정 유연성이 우수한 신용등급에 기여한다고 평가
  - 평가 등급: Moody's (Aaa), S&P (AAA), DBRS (AAA), and Fitch (AA+)
- (2023-24회계연도 차입 계획)
  - 2023-24회계연도에 정부 차입규모는 4,210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만기도래 채무의 재융자 3,580억캐나다달러와 630억캐나다달러의 신규차입 계획

- 2023-24회계연도 공공채무 조달비용은 439억캐나다달러(GDP의 1.6%)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1년간 금리인상으로 공공채무 조달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
  - ◆ 전망기간 동안 공공채무 조달비용은 2027-28회계연도까지 GDP의 1.5% 정도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채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평균 채무 조달비용보다 훨씬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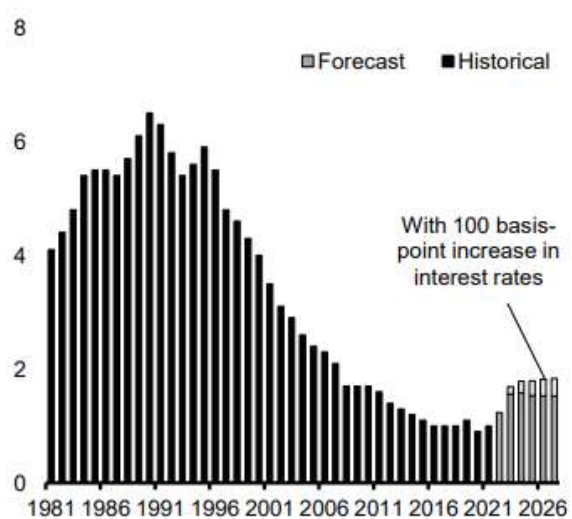
» 캐나다의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로로 순항

- 장기 연방채무 대비 GDP 비율이 2055-56회계연도까지의 장기 전망 기간 동안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그림4> 참고)
  - 인구 고령화를 포함한 불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와 완만한 미래 생산성 증가율, 차입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전망

< 그림 2 > 연방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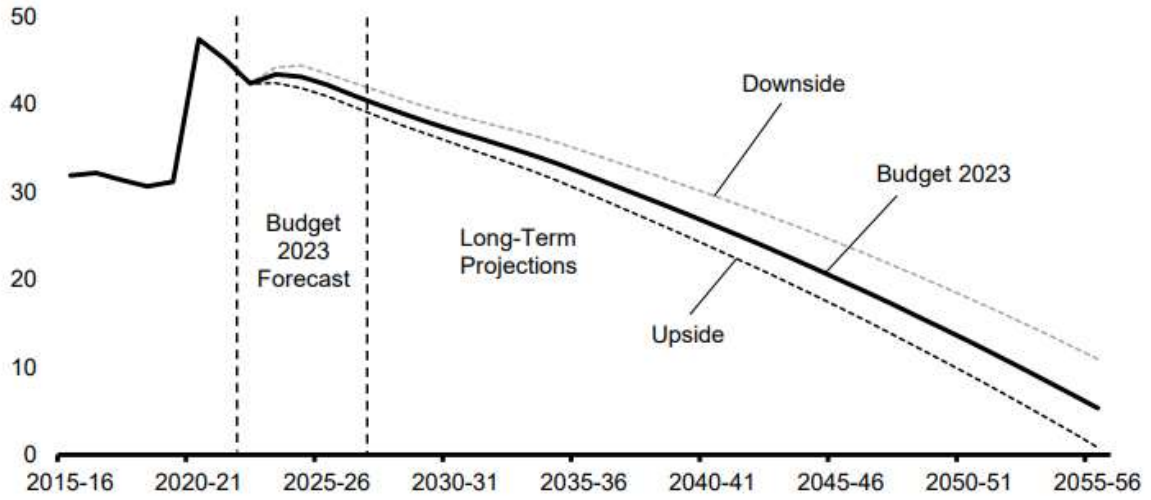
< 그림 3 > 공공채무 조달비용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3 Chart A2.1, 2023.3.28.

〈 그림 4 〉 장기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3 Chart 29., 2023.3.28.